

## 아침에 내리는 눈

윤 제 철(시인)

아침 하늘에 눈이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

똑같이 내려오는 눈이라도  
누구의 입김에 날려  
갈피를 못 잡고 떨어지느냐  
무슨 추억이 그리 많아  
생기를 잃지 않고 춤을 추느냐

땅위에 살포시 내려서서  
경쾌한 스텝을 밟는 눈이여  
그 옛날 소년의 꿈을 잡아주던  
소녀의 뽀얀 손 같은 눈이여

눈이 하늘에서 내린다. 눈이 소리 없이 가만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나름대로 날려 춤을 추듯 움직이면서 내려온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생을 마감할 때 까지 살아가듯 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동안을 사는 것이다.

눈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누군가의 입김에 날려 갈피를 못 잡고 떨어지는 것이다. 무슨 추억이 그리 많아 몸을 가만두지 않고 춤을 추며 활기를 띄고 날아온다. 어차피 인생살이 또한 추억을 많이 만드는데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땅위에 내릴 때도 살포시 경쾌한 스텝으로 밟고 내려온다.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순간에도 고통스럽거나 두려움 따위는 찾아볼 길이 없다. 한 세상을 소풍 나와 잘 놀고 하늘로 돌아가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떠올린다.

더구나 꿈을 잡아주던 소녀의 뽀얀 손 같은 눈이 내리는 아침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분주한 12월 중순 새롭게 다가오는 1월을 맞이하듯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하루의 아침은 일 년의 일월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 천 연

김 희 정(수필가)

설렌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까? 맑고 향기로운 그곳으로 가기 위해 꽃단장을 한다. 순백의 마음을 전 하련다. 간절한 마음이 앞선다. 저녁 식사를 예약 했는데 낮부터 기다려진다.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함께 하기 위하여 존중과 배려를 속삭여본다. 삶은 아름다운 시간들의 여정인데 잘 가꾸고 있는 것일까?

베란다에 노랗게 핀 소국에게 눈길이 간다.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디고 예쁘게 핀 자태가 못내 고맙다. 어린 싹을 볼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인사를 나눈다. 간밤에 잘 잤니? 우리 집에 와 줘서 기쁘구나. 잘 살아보자. 어젯밤 무슨 꿈을 꿨니?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하루 일과를 이야기 하다보면 실천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자라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 바빠서 집에는 가끔 온다. 딸이 소아청소년과 임상조교수인데 논문 쓰느라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 자정에 들어오면 새벽에 출근이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눈을 쳐다 보면 졸음이 한가득이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속으로만 안부 인사를 하고 만다. 카톡 덕택에 매일 속마음을 전한다. 어렸을 때 추억과 고마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롯데 123층 전망대를 함께 가기 위해 한 달 전부터 말한다. 겨우 시간 내서 가게 되었다. 밤에 보는 한강변이 층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다. 창밖의 야경은 밤의 요정들이 아름답게 날개를 펼치고 있다. 달콤한 밤하늘의 별들이 속삭인다. 딸과 함께 사진 찍고 빙수 먹으면서, 냉방이 잘된 실내는 속이 덜덜 떨려서 크게 웃었다.

다들 바빠서 나 혼자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즐겁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책읽기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책을 읽다보니 공부까지 하게 되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문학공부도 더해 볼까 한다.

요즘 서울숲 산책을 새벽이면 한다. 물 머금은 새벽 잔디를 밟는 기분이 즐겁기 그지없다. 한강까지 걷다보면 상쾌한 새벽공기가 하루를 즐겁게 해준다. 노부부의 다정한 모습도 가끔 보게 된다. 지난 일요일에는 청계천변을 걸어서 광화문까지 갔다. 응봉산 정상을 거쳐서 5시간을 걸었다. 마침 외국인들의 거리 음악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고국의 향수를 달래려고 모여든 각국의 외국인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다. 악기연주가 그 나라의 애환을 담고 있다. 고유의상을 입고서 환하게 웃고 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열심히 환호한다.

어제는 친구가 인사동에서 만나잔다. 예전에 자주 가던 찻집에 가서 국화차를 마시자고 한다. 찻집에 들어서니 가을노래가 한창이다. 은은한 국화 향속에서 가을을 체득하였다. 밖으로 나오니 낙엽이 사각사각 밟힌다. 소품들이 멋스럽게 진열된 가게를 들어서니 친구가 좋아하는 귀걸이가 보인다. 친구에게 선물하였다. 가을은 소중한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게 만든다. 주는 기쁨이 크다. 우리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소품들이 즐비하다. 자주 찾게 되는 것은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어찌면 어머니가 그리운 것이 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노리개, 한복, 쌍가라지 등이 눈에 어른거린다. 중학교 때 어버이날이면 어머니께

예쁜 브로치를 선물하기 위해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다. 한복에 잘 어울리는 브로치를 구하기 위해 많은 가게를 찾아다녔다. 제법 값나가는 선물이기에 용돈을 꾸준히 모았다. 편지와 함께 어머니께 드리면 환하게 웃으셨다.

어느덧 어머니라는 위치에 와 있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칭찬과 긍정 속에서 자랄 수 있게 하였을까? 노력은 많이 하였지만 자신이 없다.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책을 많이 읽었다. 아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함께 매일 도서관을 다녔다. 덕택에 구립도서관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독상을 받았다. 아들은 속독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지금도 책을 읽으면서 기분전환을 한다고 한다. 벌써 내과 레지던트 3년차이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아들이다. 우리는 지금도 책을 읽고 토론한다. 발제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십전십. 눈빛만 보고도 안다.

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책이 자산이듯,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배울 점이 참 많다.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것들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젊은 친구들과 대화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하고, 배워보려는 마음이 앞서야겠다. 먼저 경청하고 의견을 묻고, 내 생각은 마지막에 말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서두르지 말자. 느릿느릿 이해되는 우리 나이에 나와 비슷한 이웃이 있기에 여유롭다. 서로 위로하면서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고 배워서 깨닫게 되면 함께 기뻐한다. 아는 만큼 행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고맙다. 노년에 얻은 새로운 즐거움이다. 호기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나보다.

아직도 배우니? 친구의 물음이다. 책을 읽기에 불편함이 없어서 고맙다. 시력보호운동을 배운 덕택이다. 눈 운동을 원활하게 하여서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눈이 나쁜 친구들에게 시력보호운동을 함께 하면 좋아한다. 자세교정도 덤으로 해준다. 오른쪽 어깨가 결린다는 친구, 허리가 아프다는 친구 등 병원에 잘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운동 방법을 가르쳐주면 잘 따라한다. 바른 자세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음식 섭취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리법과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친구들의 의견이 다양하다. 다들 많이 알고 있어서 대화가 흥미진진하였다. 전신마사지도 해주었더니 자주 만나자고 한다. 만날 때마다 해주란다. 내가 건강할 때 많이 해주겠다고 했더니 모두 크게 웃는다. 재능기부 할 때가 가장 즐겁다. 열심히 배워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행복하다.

다정한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맙다. 인연은 노력의 산물인 것 같다.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긍정의 농도가 비슷하면 보고 싶어진다. 살아오면서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가 있어서 항상 감사하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친구를 만난다. 그 친구는 끝까지 경청한다. 마지막에 애썼다고 위로해준다. 들어만 주는 마음이 고맙다.

가을빛이 완연하다.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이 군무처럼 아름답다. 은행나무 잎 사이로 고개 내민 햇살이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낙엽은 내년을 약속하는 밑거름이라는 말들이 속삭여온다. 자연에 순응하기 위한 회기본능이 우리를 일깨워준다. 언젠가 헤어질 때, 따뜻한 분향의 보금자리라는 것을 알려준다. 자연의 품에서는 모두가 너그럽다. 함께 나누며 사는 세상이다. 먹이사슬이라 할지라도 순응의 과정이다. 해님도 모두에게 무상의 나눔을 주고 있다. 서로 도와가며 살라는 멋진 의미가 깃들여있다.

하늘이 준 인연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배우고 또 배워서 채워나가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시나브로 약속의 시간이 다가온다. 첫 만남의 설렘을 간직하면서 한강변의 노을을 바라본다. 강물에 반짝이는 금빛 물결이 내 마음인 양 눈부시게 비추고 있다. 가로등이 벌써 마중 나와 있다. 환영의 미소인가 보다.